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

김 경 미*

이화여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자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북한 사회 및 탈북과정에서 외상을 경험하고 남한 사회에서 외상 후 성장 경험을 기술할 수 있는 북한이탈여성을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면담한 4명을 사례연구로 탐구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경험은 가족 해체로 인한 정서적 외상 경험 및 탈북과정에서 체화한 사회구조적 차별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 후 성장으로 인한 행위자성의 발현은 성찰적 주체로서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공동체 및 교육 자원을 통하여 행위자성을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적 변화의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며 타자와의 연대적 실천의 삶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의 재구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 외상경험, 북한이탈여성, 행위자(agency), 사례 연구

이 논문은 2019년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 주저자: 김경미/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goldkkm75@gmail.com

I. 서론

북한이탈여성의 국내 입국 비율은 2021년 6월말 기준 72.0%이며, 20~30대는 56.8%로 다른 연령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통일부, 2021).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그동안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연구가 성인중심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넘어 아동청소년기에 외상을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대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경험한 청년 세대는 북한에서 생활할 때부터 육체적, 정신적, 정치적, 사상적으로 외상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체3국 체류 과정에서도 발각이나 체포 두려움, 가족과의 생이별, 육체적 외상, 신뢰하던 관계로부터의 배신 등의 다양한 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양계민, 황순택, 2008).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인신매매 불안이라는 이중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한범 외, 2003). 따라서 이들은 아동기의 초기 외상적 스트레스(traumatic early-life stress)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며(김재환, 가요한, 2020), 외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 장애 발생에 기여 하며 성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입국 전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상당한 비율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홍창형 외, 2005). 더 나아가 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는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엄태완, 2009). 특히, 북한이탈여성은 한국 사회의 일반 여성에 비해 불안, 우울, 신체질환, 강박증, 대인 민감증, 적대감, 신경증 등의 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경, 오수성, 2010). 더불어 가족 및 친척관계, 자아존중감, 일상생활, 신체·정신건강, 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미자, 2010).

이러한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연구는 남한 정착 이후 이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외상에 중점을 두면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나 ‘낙인 효과’ 발생으로 사회적 편견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들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심리적 자원을 간과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한 사건이 외상에 머무는 것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한 외상의 재해석과 고통에 대한 이해, 성장을 향한 의지 및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북한이탈여성이 외상이라는 삶의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 위기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내재된 욕구와 성장 지향성에 주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인은 외상 경험 이후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과 대처 수준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수준 또한 다양하다. 이로 인하여 개인은 삶의 주요한 위기나 외상 경험 이전의 수준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선행연구에서도 외상 후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현경·전우택, 2009; 이숙영 외, 2016). 북한이탈여성은 남한 입국 이전부터 누적된 외상 경험이 시간 경과에 따라 외상 증상이 호전되거나 수동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탈북자체를 삶의 비전과 가능성의 기회로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의 탄력성(resilience)은 개인의 기질보다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영향을 중요하게 반영한다(Kim, 2012). 문화는 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해주며(Stuart, 2004), 집단 문화의 신념, 관습, 규범 등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승인 또는 사회적 구속에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문화 적응은 거시적 및 미시적 문화의 영

향을 받기 때문에 외상 후 성장 경험자가 광범위한 문화에 소속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즉, 삶의 위기를 겪거나 외상 후 성장을 특정한 형태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Calloun & Tedeschi,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북한과 탈북과정, 한국이라는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사회를 해석하는 행위자(agency)로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관련 연구는 주로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한계가 나타난다. 또한 심리학적 관점은 외상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정치적 과정임을 간과하고 있다(김명희, 2014).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이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영향 속에서 이들이 경험한 성장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사회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도움이 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처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는 행위자성을 발휘하기도 한다(허라금,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외상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사회에 속한 인식들을 획득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파악하고 기존 사회구조에서 실천적 삶의 맥락을 고려하여 삶의 방식을 재창조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행위자성은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이 남한의 사회적 위치 속에서 행위자로서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 등은 기존 사회 구조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긍정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이 외상 후 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한계적인 구조적 조건에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행위자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을 탐구하는 연구는 아직 미비하며, 양적 및 질적 연구 축적이 미비한 것도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이 연구는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바탕을 두는 일반화에 중점을 두기보다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에 주목하여 사회문화 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견되는 행위자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의미

아동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발달 과업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과업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기의 외상은 인지, 행동,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정 생물학적 변화와 연관성을 갖게 되어 일생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기의 외상 스트레스는 신경전달물질계, 신경내분비계의 변화로 인하여 공포, 편도, 해마와 같은 두뇌기능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면서 심리적 변화와 성격발달,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신원, 정현석, 류인균, 2015). 즉, PTSD로 인하여 주의집중력 저하, 기억의 결함,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사건은 성인기에 경험하는 외상에 비해 지속적이며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성인기에 심리정서적 문제 원인으로 시사되고 있다(이국화, 하은혜, 2009).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은 아동청소년기에 외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며(양계민, 황순택, 2008), 아동청소년기에 북한사회의 경제적 어려움과 탈북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경험은 정서적

외상 및 발달적 외상의(Van der Kolk, 2005) 특성으로 장기적으로 성격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정서적 외상은 삶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관계적 성찰의 발달을 지연시켜 사회적 관계에서 취약성이 드러날 수 있다(김홍주, 2020).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외상은 남한입국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기보다는 북한과 탈북과정 등의 연장선상에서,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은 부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18세 이전의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은 역기능적 사고와 개인에게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소희, 2016).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같은 비대인 외상도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서조절 어려움, 섭식 문제, 우울 및 공격성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 상황을 회피하거나 집중력 저하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외상의 발생은 북한이탈여성이 아동청소년기에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외상 사건과 중첩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외상이 반드시 극심한 고통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외상 후 성장에서 ‘외상’은 장애의 원인보다 개인과 사회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보여주는 적응유연성을 강조하며 병리적 증상보다 인간의 잠재된 역량을 강조하는(Bonanno, 2004) 실증적 연구에서 외상 경험이 성장 매개로 작용하여 외상이 반드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Calhoun & Tedeschi, 2004). 외상 경험자는 개인들 간의 내·외적인 자원에 따라 고통과 적응 수준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디스트레스(destress)와 성장(growth)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 과정을 외상 후 성장

(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하며, 외상으로 인해 손상 받기보다 극복하는 능력 혹은 개인의 기능 및 적응수준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PTG)은 삶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고 대응하는 결과로 얻는 긍정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성장은 개인이 외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태도나 변화로 인한 대처결과로 접근하기도 한다.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 후 성장(PTG)을 외상의 대처 결과로 보았으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저항하거나 손상 받는 것을 넘어서는 변화를 의미하며, 단순히 외상 이전으로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선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다섯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개인의 잠재력 발견, 새로운 기회 도전, 감사의 증가, 대인관계 향상, 삶의 철학적·영적인 성숙을 도모한다.

외상 후 성장(PTG)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PTSD)와 외상 후 성장(PTG) 관련 연구가 동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외상 후 인지 및 사건 관련 반추(이동훈 외, 2017), 사회적지지(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자아탄력성(김보라, 신희천, 2010), 학업탄력성(김혜진, 2016), 종교·영성(박혜원, 안현의, 2006; 임선영, 2019; 2020), 성찰(고구희, 송현주, 2015; 김홍주, 2020) 등이 외상 사건 이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로 나타난다.

더불어 Milam, Ritt-Olson, Unger(2004)는 외상 청소년이 외상 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우울, 종교심, 부정적인 사건과 경과된 시간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교성이나 영성이 외상 후 성장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종교의 경우 외상 후 성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현미, 정민선, 2014). 종교는 개인에게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고통과

상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념체계를 제공한다.

더불어 외상 후 성장에서 성찰적 반추도 중요하다. 성찰은 외상 경험자에게 사건에 대한 개인의 감정, 사고, 행동 등의 내면 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반추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Csank & Conway, 2004). 특히, 외상 경험자에게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외상 사건이 개인의 기존 인지체계가 흔들리고 무력화되는 경험을 동반하기 때문이다(Calhoun & Tedeschi, 2014). 무엇보다 외상 후 성장은 사건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동반하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인지적 과정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아동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이 외상 후 성장을 보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시간 변수가 외상 후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없지만 외상 후 성장이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외상 후 성장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아동청소년기 외상 경험자의 외상 후 성장 연구는 이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적응 요소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성인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다른 문제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행위자성의 접근

북한이탈여성이 탈북과정과 한국사회에서 선택하는 행동과 가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행위자로서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을 균형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행위자성(agency)에 대한 사회, 구조, 개인 역량

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해석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행위자성은 자신의 행동과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 및 환경에 변화를 유발한다고 하였다(Bandura, 2018). 물론 개인의 역량을 강조한다고 해서 사회와 분리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의 내적 특성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심리학 관점에서 개인의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을 심리적 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증주의적이며 사건과 행위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층위 과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김명희, 2014).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Alexander(2007)는 문화적 외상으로 접근하여 외상이 그 사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층위에서 발견되어 외상이 재생산되는 사회적 과정 즉, 공적 담론, 제도의 변화 등과 상호작용 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하여 외상 사건은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Calhoun & Tedeschi, 2014; Hussain & Bhushan, 2013) 북한이탈여성의 북한, 중국, 제3국, 한국사회의 경험이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외상 후 성장은 인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행위자가 사회적 구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Archer, 1995). 즉 사회구조와 문화는 행위자의 가치와 행동이 발현되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 더불어 사회문화적 접근은 행위자가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실천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인의 적극성을 배제하기보다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이로써 행위자성은

과거의 경험에 뿌리를 기반으로 미래를 지향하나 현재의 위치성에서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Emirbayer & Mische, 1998).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문화적 접근에 따른 행위자성을 정의해보면, 행위자가 선재하는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상호과정 속에서 구조를 재생산하기도 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Emirbayer & Mische, 1998). 또한, 행위자성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여성이 외상 후 성장을 통해 발현되는 행위자성은 이들이 어떻게 사회적 제약에 반하여 행동하고, 성찰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행위자성은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이 어떠한 과정에서 발현되는지와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다양한 주체들이 외상 및 외상 후 성장의 재생산에 개입하는 기제를 설명할 수 있는 경험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사례연구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현실적 맥락 속에서 현재적 현상을 탐구하는 경험적 연구방법으로 인과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Yin, 2014),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례의 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면담, 참여관찰, 문헌 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Creswell, 2013). 더 나아가 사례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대상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현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이영철, 2006) 사회구조적인 사회화 특성을 보여준다.

사례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에서 구현되는 사건의 연속성은 사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경험적 일반화보다는 개념적 일반화에 의미를 두면서 특정 사례에 중점을 둔다. 즉, 실증적 연구의 변인 하나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례 연구를 통하여 변인을 넘어선 현상에 대한 심층적 탐구를 통하여 그 현상의 복잡성과 고유한 특성이 발생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take, 2000). 더불어 사례연구를 지지하는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경험을 객관화시키려 했던 환원주의와 실증주의 패러다임의 한계를(박찬중, 2012) 벗어나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사건이 각 국면에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Steinmetz, 2004). 실증주의적 외상 연구가 행위자의 고통을 숫자로 환원하거나 이들의 동기를 행위에 대한 설명과 동일시함으로써 경험에 의한 이론의 과소결정을 일으킨다면, 경험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트라우마 담론은 이론에 의한 경험의 과소결정이 발생할 수 있다(Harré & Secord, 1972; 김명희, 2014 재인용). 이러한 양극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자의 내러티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며 그 행위의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여성이 탈북과정과 한국 사회 적응과정에서 경험한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은 개인으로만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행위자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이 북한 사회와 사뭇 다른 한국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며 행동적 실천으로 나아가는지를 드러내는 일은 이들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적응양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이로 인하여 사례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존재를 형성하고 이들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참여자로 북한이탈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탈북과정에서 탈북남성에 비해 탈북여성이 경험하는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하며 남한 입국 이후에도 사회·심리 적응에 관하여 성별에 근거한 연구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조영아 외, 2005). 더 나아가 여성은 그 사회가 속한 사회문화 및 역사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심리적 의미 체계 및 행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생존전략으로 중국에서의 결혼 및 사실혼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 상실 및 가족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 또한 가족의 탈북으로 가족 해체 및 관계상실을 경험하며 탈북 과정에서 복송위기, 신분 제약, 성범죄 노출 등의 외상을 경험한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경제적 위기는 가족과 여성이 감내해야 했던 구조화된 폭력 및 차별 경험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에서 출생하여 아동청소년기에 가족 상실 및 외상을 경험하여 복잡적이고 연속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 둘째, 탈북 이후 중국 및 제3국을 경유하여 남한에 입국한 자로 상이한 사회구조의 위치 관계를 경험한자, 셋째, 연구 참여자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외상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의 변화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북한이탈주민을 연구하는 교육학 및 북한학 박사들의 소개를 통해 의도적 표집으로 추천받은 7명에게 사전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연구 목적 및 진행 과정을 설명한 이후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이름	나이	탈북 년도	거주지	가족 관계
1	이유진	30대	2006년(18세)	경기도	부모, 남편(남한), 자녀2명
2	김미나	20대	2000년(10세)	서울	엄마, 여동생
3	오재인	30대	2009년(13세)	경기도	엄마, 남편(남한)
4	박슬기	20대	2012년(13세)	서울	엄마

3. 자료 분석

인터뷰는 2019년 4월~12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반구조화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일상의 대화가 포함되도록 질문을 재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1~2회 진행하였으며 매회 약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면담질문은 행위자성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성장과정, 탈북과정, 한국에서의 삶의 이야기, 장·단기적 삶의 목표, 외상을 극복하고 외상 후 성장 과정의 변화 등으로 준비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 외에 이들의 외상과 외상 후 성장 관련 문헌, 영화, YouTube 동영상,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인터넷 자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삼각검증(triangulation)을(Stake, 2000) 함으로써 자료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분석은 면담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적 보완 사항은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은 일차적으로 기술 및 해석 과정에서 면담 및 수집 자료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배열한 이후 연구 내용에 맞게 의미를 개념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패턴 코딩과정에서 행위자성을 재개념화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의 특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위자성의 발현과정, 갈등, 딜레마 등을 분석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분석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검토의견을 받아 반영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학 전공자의 동료 평가(peer review)를 진행함으로써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을 만한 정보 및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이후, 연구 참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녹취되며, 인터뷰 진행 시 중단의 자유와 종결 시에 폐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인터뷰 및 녹취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터뷰 전에 설명하였다.

IV.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행위주체성 과정

1. 북한이탈여성의 외상의 특성

1) 가족 해체로 인한 정서적 외상 경험

연구 참여자들이 북한을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한 배급제가 무너짐으로 인한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이 있다. 국가에 의해 공급되었던 배급제는 북한 주민의 삶을 지탱해주는 근본 토대였는데 배급이 중단되자 주민은 삶을 지속할 방

법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슬기에 따르면,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동네에 누가 굶어죽었다’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이러한 미공급 사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여성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국가의 책무가 개인의 책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장사를 하거나 중국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더 나아가 돈을 벌기 위해 북한을 떠나야 하는 암묵적인 강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여성은 어린 자녀를 북에 남겨두게 되고, 어린 자녀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 외상인 애착외상을 경험한다.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졌고 아빠도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엄청 조심,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애들이 어리니까... 하염없이 오겠지 기다렸고, 그게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이유진)

“음... 상처... 상처... 엄마가 집을 나가던 그제 항상 기억이 있었거든요.”(오재인)

이러한 정서적 외상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요인이 되며 정서적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노 감정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한다. 가령 부모 및 양육자의 방임으로 인한 애착외상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유발한다(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이러한 맥락에서 오재인은 새엄마와의 관계가 부정적이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긴장감이 드러났다.

“엄마가 나가고 새엄마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생판 남이랑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냥 싫어도 좋다고 해야 되고 그게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장기간 어릴 때 자리 잡히다 보니 제 성격이 되버린 거예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제 눈빛이 날카로워서 말을 못 걸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어 누가 제 이름을 부르면..., 휘 돌아봤거든요. 되게 예민해있었어요.”(오재인)

이유진은 정서적 외상이 심리·정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삶의 좌절로 인한 자기포기 행동 양상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18세 이전의 부정적 외상 경험은 역기능적 사고 패턴과 자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주소희, 2016), 이유진은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관계 상실 경험이 정서적 불안과 오랜 기간의 우울 증상으로 발현되어 자살 시도라는 외상의 극단적 형태를 보였다.

“그때가 중학교 4학년, 내가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 그냥 엄마가 없다는 거, 돌아가서 없는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불합리한 거로, 미래에 내가 뭘 할라고 해도 그 딱지가 항상, 비법월경이라고 하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딱지가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거고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엄마 없이 사는 거에 대한 그런 외부적인 시선도 그렇고 엄마가 없다는 상처, 그래서 사는 게 되게 싫었다. 정통편이라는 중국약 있거든요. 그것을 몇 십알 한 2-30알 먹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할튼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던 거 같아요. 그때 당시는 엄마가 없다는 것이 되게 상처였고, 엄마를 원망도 많이 했어요. 차라리 돌아가서 없는 거였으면 좋겠다. 음..., 뭐 어쨌든 보고 싶고 힘들고...” (이유진)

더불어 가족의 비법월경으로 인한 ‘행방불명자’ 낙인은 북한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의 토대 마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으며, 북한당국의 감시로 인한 공포(terror)로 생존권을 위협 받았으며 주민에게 냉대를 받았다. 이유진은 북한당국의 갑작스런 검열로 추방 위기에 처해졌으나 ‘큰돈을 그들의 입에다 입을 막’아서 추방은 면했으나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야 했다. 이처럼 반복적인 외상이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북한에서 삶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근데 탈북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검열이 평양에서,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그 하도 국경연선, 국경시대 사람들이 거의 한 집 건너 한 집은 가족 한 명 이상이 탈북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중앙에서 당 간부들이 그들을 지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엄마랑 언니랑 두 명이나 탈북을 했으니 그 조사하는 범위에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그때 대개 신변,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거 같아요. 이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정신적으로, 그때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구나...”(이유진)

또한, 박슬기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어머니와 동거하였는데 친가는 어머니의 재혼을 염려하며 재산과 집을 요구했으며 젊은 어머니가 북한사회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다. 어머니를 향한 주변 남성들의 성적인 유혹은 삶의 환멸을 느낄 만큼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육체적 외상을 포함한 정신적 외상으로 전이될 수 있으며 젠더화된 외상 과정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가족과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는 이중 외상을 경험할 수 있다.

“6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할까봐 노심초사하던 할머니는 재산을 다 빼앗아 갔고 집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다행히 외가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줘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젊은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나봐요. 엄마가 혼자사니까 위험한 일이 많았는데 밤에 남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혼자 5년을 생활하시던 어머니는 북한생활에 환멸을 느끼셨대요.”(박슬기)

2) 탈북과정에서 체화한 사회구조적 차별

연구 참여자들의 탈북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불안으로 야기된 사회문화적 변화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부딪힌 사회구조가 북한사회와 다르다는 것을 체화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행동과 사고를 하기에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다

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직면해야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에서 친척집과 교회, 제3국에서는 브로커 및 수용소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지만 불편한 관계에 직면한다. 김미나와 박슬기는 중국 친척집에 거주하면서 ‘식 모살이’를 하며, 가정 경제에 필요한 일을 돕기도 하지만, 친척집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라고 했다. 이들에게 친척집은 물리적 보호 장소이지만 친척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감정을 억제하는 법을 체화하고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지 못하며, 지나친 책임감을 키우는 ‘철이 일찍 든’ 성인아이(Adult Child)로 성장하게 된다.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친척집에 얹혀살다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한테는 트라우마죠. 눈치밥을 먹어야 하고 아무리 친척이라고 해도 뭐가 좋겠어요.”(김미나)

“어릴 때 여러 집 살림을 하다 보니 눈치가 늘었는데, 눈치 보는 것이 스트레스이기도...,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에어른처럼, 눈치안보고 칠들었다는 이야기 안 듣고 살았으면 했어요. 부모님이 일일이 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다 보니 스스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박슬기)

이러한 상황은 감옥 및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도 이어져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수용소 생활은 성인이고 아동이고 할 것 없이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거나 배려는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선과 악의 혼합이라는 인간 본연의 특성이 드러났다. 또한 그 곳은 여전히 탈북 과정의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극심한 공황상태, 생존 서바이벌 같은 압박감과 감옥이라는 장소가 주는 속박(captivity)의 환경은 심리정서 불안상태를 고조시키는 외상으로 복잡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갖는다. 그럼에도 이유진은 불안과 공포의 장소였던 수용소에서 고향 언니를 알게 되어 교회 관계자를 소개받아 위로 방문을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 혹은 아는 사람을 만나는 사회적 연

결망이 중복되는 ‘좁은 세상의 원리(small world principle)’가 재연되기도 한다(Milgram, 1967; 진미정, 이순형, 김창대, 2009).

“감옥 생활이 힘들었는데 누가 챙겨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하지 않아서 화장실 쪽에 새우잠 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밥을 안줘요. 밥을 안줘가지고 돈을 우리가 쥐서 밖에서 사와서 주고 했는데 하루 두 끼 먹었었나..., 탈북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감옥에서 지낸다는 것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거기 전도사랑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면회 와서 성경책 주고 공책 같은 거 나눠주고, 나만 만나러 와주고 그랬어요.”(이유진)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의 탈북과정에서 발견되는 활동의 반경은 가족이라는 행위공간으로 제약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김미향은 어머니와의 관계적 단절(disconnection)과 반복되는 조우(遭遇)를 경험하고, 이유진은 탈북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성의 열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긴장된 경험은 분열된 가족 트라우마의 재생산을 반영하기도 하며 역설적으로 상실된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 발견된다.

“엄마를 먼저 보내고..., 지금도 보면은 트라우마죠.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면 100% 보장된 탈북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출발하고 제가 출발하는 후발이었지만 제가 복송될 수도 있고, 엄마가 복송될 수도 있는 거구 그런 불안감이 엄청 심했어요. 그런데 코스 코스마다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이산가족처럼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한국에 와서도 국정원에서 엄마를 만난거예요. 또 부둥켜안고 또 울었어요. 가족과 떨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되고..., 엄청 진짜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예요.”(김미나)

“... 브로커를 만나고 ‘나는 잘 따라가고 있다’ 엄마랑 전화통화로 확인을 했고..., 중국에 도착한 다음 날에도 엄마랑 통화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돈을 보내줬어요. 탈북여정이 이어지니까 OO 수용소까지 갈 동안 옷

이나 생필품이 필요하니까. 계속 이동하는 중간에도 아저씨에게 엄마가 전화가 와서 통화했고..., OO 국경을 넘어서 엄마를 만나서..., 눈물의 상봉을 하고 울고불고 한바탕 쇼를 하고 엄마랑 같이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불법적으로 여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OO 감옥에서 돈을 받고 한국이랑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더라구요. 엄마랑 통화하면서 엄마가 돈을 보내줘서 감옥 안에 있는 슈퍼에서 물이랑 먹을 거 살 수 있었고, 엄마는 걱정이 되가지고 중간에 한번 면회를 왔었어요.”(이유진)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체류과정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교회에 거주하기도 한다. 박슬기가 거주했던 교회는 어린 친구들이 많았는데 박슬기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여성이 중국에서 출산한 아이들이 무책임하게 버려졌다고 했다. 또한 북한 여성이 북송되어 중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남한 행을 선택했다가 중국 남편의 협박을 받아 아이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국 남편들 역시 아이를 무책임하게 버렸다고 하였다. 이러한 ‘무국적’ 탈북 2세는 종교 및 시민 단체가 외부 기관의 후원에 의존하여 보호를 하지만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진미정, 이순형, 김창대, 2009)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성범죄 위협에 노출되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실제로 박슬기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이러한 범죄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경험하였다. 박슬기의 경우처럼 중국 거주 시 교회와 연결되어 물리적 보호를 받지만 그곳에서 불의한 일을 경험할 때 실천적 행동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회정치적 위계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돌봄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이면이 감추어져 왔음을 반증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은 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탈북과정에서 브로커 연계 없이 이동자체가 불가능하고 체포 및 발각의 두려움과 공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브로커와 일종의 삶을 담보로

거래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브로커와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 한국에 무사히 입국할 가능성이 큰 반면, 브로커의 변심, 약속 불이행, 물건 갈취, 특히 이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부담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김미나는 제3국 이동 과정에서 브로커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니까 그게... 그 탈북과정에서 국경마다 브로커가 몇 명씩 있었어요. 어떤 중간 과정에서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저를 따로 태우는 거예요. 저희가 여자 4~5명이었거든요. 저보다 더 어린 친구 1명이 더 있었고, 저 그리고 28-29, 그리고 40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따로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몰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폭행 그런걸 하려고 저를 데리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들어가려구, 모텔 같은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억지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저를 못했으니까 다른 언니를 데리고 갔어요. 저 선에서 끝났으면 다른 언니를 그렇게 안했을 텐데 저를 못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언니를 그렇게 했어요. 그 언니가 갔다가 밤에 왔는데..., 국경을 넘게 됐어요.”(김미나)

이처럼 북한이탈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브로커와의 거래에서 또 다른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김미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수치와 공포를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을 그러한 상황에 내몰 수밖에 없었다는 죄책감이 수반되었다. 또한, ‘철이 없어서 잘 몰랐지만’ 만약에 ‘어리지 않았다면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제가 자처해서 몸을 바쳤을 것 같은 트라우마’도 있다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김미나를 포함한 북한이탈여성은 탈북과정에서 북송되는 것보다는 성범죄에 협치하는 행위를 통하여 생존을 위한 소극적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진미정, 이순형, 김창대, 2009).

김미나는 남한 입국 이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보통 탈북과정에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당했는데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김미나가 여성에 대한 폭력성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침묵의 여성화(gendered silence)’를(조은, 2001) 깬 이유는 더 이상 북한이탈 여성이 이중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유진과 박슬기는 탈북과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인권이 전혀 없으며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들의 아픔은 남한 사회 적응과정에서 치유의 영역이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의 시선을 마주하게 되고, 아무도 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재생산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을 향한 행위자성의 발현

1) 성찰적 주체로서의 자아(self) 형성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의 변화된 환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외상은 개인에게 위협적으로 지각되면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그 무게에 압도되어 자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무너지기도 한다(Allen, 2010). 따라서 외상의 회복은 자기에 대한 신뢰를 수반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북한이탈여성은 외상 사건을 해석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자아(self)를 발견하려는 노력부터 시작되었다.

이유진은 한국 도착 이후에도 ‘불안정한 삶과 죽음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울증과 악몽으로 힘들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오랜 시간 받았던 정신적 억압에서 풀려났더라도 도덕적 및 정신적 건강에 손상 받을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빅터 프랭클, 2020). 이유진의 우울증상은

남한 적응 과정에서 유발되었다기 보다는 북한사회의 경험과 탈북과정의 심리적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울감은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으며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고, 부모님도 원망하게 되는 부정적 심리상태가 지속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왜 태어났지’라는 물음은 가장 큰 원망이기도 하였으며, 북에 남겨두고 온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가중되었다. 악몽은 한국에 와서 초반에 굉장히 심했는데 ‘복숭을 당하는 것보다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북한에 있어서 다시 한국을 가야하는데 한국으로 가기위해 고군분투 하는 꿈’을 계속 꾸는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악몽을 꾸게 되면 며칠 동안 우울감이 깊어지고 일상생활의 무력감도 경험하였다. 이에 주위 북한이탈주민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도감을 갖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악몽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취약한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강한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유진은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생사(生死)를 오가는 탈북과정도 잘 견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글쓰기를 통한 반추과정을 통해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특히 외상 사건 해석 과정에서 글쓰기는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스스로를 지키고 싶기 때문인데 외상 사건을 성찰하고 고통을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외상 경험자의 글쓰기는 반추과정을 촉진함으로써 인지구조의 재인식과 삶의 의미를 성찰함으로써 외상 후 성장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설지윤, 김창대, 고유림, 2019). 이유진은 지속적인 성찰과 반추를 통하여 ‘예전에 비하여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물론 좋은 사람으로 자아가 형성하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현재도 ‘죽음과 생명’의 두 갈림길에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박슬기 또한 탈북과정의 어렵고 힘들었지만 ‘보석 같은 시간’이었으며, 오재인은 ‘탈북 자체가 큰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더욱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위치한 현재의 모습을 인정하기 위해서 북한 출생과 탈북 과정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은 개인의 관점이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경험을 성찰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적 자아(self)를 형성하며(Allen, 2010)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자아는 역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 낸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며 외상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스스로를 반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공동체를 통한 행위자성의 강화

사회적 지지는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하다. 공동체의 지원과 배려는 외상의 감정과 고통을 견디는 자원이 되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외상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부터 남한 사회에서 환대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유진은 북한출신을 밝혔을 때 ‘뭐 그런 농담을 하나’는 친구들의 반응에 위축되었고, 박슬기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주변에 사람이 몰렸다가 외면당하기도 하였다. 더하여 연평도 및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간첩아니냐’는 편견과 차별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그럼에도 이유진, 박슬기는 천천히 ‘개인으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 맺기로 편견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오재인, 박슬기는 남한 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심리·정서·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학업적 도움도 받았다. 이러한 공

동체의 도움은 이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의 지지는 남한 사회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때 OO공부방을 알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기숙하며 지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이랑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들을 통해 공부도 배웠지만 꿈을 꾸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도와주셨어요. 정서적으로 지지도 많이 받았어요.”(박슬기)

연구 참여자들은 공동체와 관계 맺기도 하지만 종교기관의 연결망을 통하여 이들이 경험한 아픔과 고통을 인정받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하여 삶을 해석하는 과정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들은 탈북과정에서 교회를 통하여 물리적인 보호와 지인을 통한 위로를 경험한다. 이러한 관계 맺음은 남한 사회에서 종교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초기 적응과정에서 도움을 받는다.

“지금은 교회를 안다니는데..., 교회를 다녔었어요. 엄마집 동네에 있는 거여 가지고... 도움을 대개 많이 받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 혼자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하면 항상 지인분을 소개시켜주시고 제가 뭐가 필요하면 항상 멘토가 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컸었어요.”(오재인).

더불어 외상경험자에게 종교는 삶의 고통과 실존을 해석하는 성찰의 매개체이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유진은 종교를 통하여 ‘삶의 끈’을 붙잡고 싶은 열망이 발현되었으며 본인과 아버지의 탈북과정의 고통속에서 ‘살려 달라’는 마음속의 외침을 통해 신(神)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이기도 하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유진은 신(神)과의 만남으로 존재와 삶의 이유가 명확해지며, 교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돌봄으로 트라우마를 치유받기도 한다.

“하도 힘들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교회를 막 다닌다고 해서 말씀에 눈에 트이고 종교적으로 성장이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그때 당시..., 어떤 신의 능력이 아니면 내 상황을 이해 못하겠더라구요. 감당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에 너무 너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이..., 탈북 과정의 어려운 상황속에서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살려달라’, ‘무사히 한국에 보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도대체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삶을 놓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고 상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달렸어요. ... 그리고 아빠가 제3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서 ‘무조건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빠가 OO곳에 도착해서 브로커가 가족들이랑 통화를 시켜줘서 통화를 했는데 아빠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계속 아빠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아님 아빠 바뀌달라고 막 이러니까 그쪽 아버님이 말씀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아빠도 힘들도 그런 상황이 힘들니까 실어증이 온 거예요. 급성실어증, 충격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많이 했고...”(이유진)

3) 행위자성 확보를 위한 교육 자본 형성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 정착에 학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의 사립대학 진학률은 2010년 952명에서 2017년 1,844명으로 증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9; 통일부, 2018). 이러한 교육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 기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적 선택은 한국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 취득’ 같은 것으로 행위자로서 ‘책무성’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사회와 상이한 ‘한국살이’는 배우고 습득해야 할 것이 많았으며 북한의 학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더욱 한국사회에 먼저 입국한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정규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대개 무서웠어요. 미용기술 같은 거 배워서 돈 벌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무조건 공부하라고”(이유진)

“... 열아홉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딱 졸업 학년에 왔는데 졸업하고 온 게 아니어가지고 고등학교 인정도 안되고 해서..., 검정고시를 볼까 아니면 대안학교를 갈까 하다가 엄마가 하도 반대를 해가지고 일반학교를 들어갔거든요.”(오은영)

더욱 연구 참여자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교육시스템 붕괴와 중국 및 제3국 경유 과정에서 교육 기회 박탈로 인한 기초학력 부재와 남한 교육제도 경험의 부재는 학업 지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외상 사건으로 인한 정서조절의 어려움,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은 학업 중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시은 외, 2013; 박은미, 정태연, 2018).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놀려고 하지 않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여 스스로를 채근하였다. 박슬기와 오재인, 김미나는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이들은 일반 학교 학생과의 교육수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한 학생보다 몇 배로 공부에 투자할 시간이 필요했으며 학교 시스템도 배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도 경험했지만 생사(生死)를 오가는 탈북도 했는데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하며 ‘버텼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 통제감 및 책임감은 학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혜진, 2016).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공부를 못했으니 초등학교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엄청 힘들어서 울면서 학교를 다니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반에서 1-2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정했는데 선생님이란 주변에서 한겨레에서 잘하는 것은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어서 맨붕이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뒤에서 3번째 정도 나왔어요. 고등학교 교육이 달라서 공부하는데 힘들었어요.”(박슬기)

“한국에 와가지구 대개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아무래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저도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3년 내내 야자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오재인)

그럼에도 이들은 학업 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교육적 선택의 행위자성의 발현은 교육자본을 형성하는 것 너머의 가족 공동체의 바램이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집단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한국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통과 의례 과정이었다.

“대학에 가서 힘들었지만 노력을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중간에 휴학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는데 잘 버텼어요...,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나라도 그런 것을 깨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봐 너희랑 별 다를 것 없어..., 그냥 나는 좀 당당하자, 내가 어떤 상처나 차별을 받더라도 부딪치면서 이겨내야지 안그러면 언제까지 내가 숨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말투..., 대학에 가서 제일 많이 고치려고 한게 언어였어요. 사투리를 벗어나야겠다. 그거를 노력을 많이 했고.”(이유진)

4) 사회적 변화주체로서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fication)

행위자성은 행동의 선택과 참여 수준 등의 다양한 행위를 통하여 전문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를 개

선해 나가고자 하는 삶의 의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은 외상 회복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경험을 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살았던 삶과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성찰을 통해 개인의 삶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의 삶을 실천의 장으로 변형하고자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행위자로서의 삶의 구조를 재구성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을 겸비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그 힘들음을 겪고 온 이유가 있을 텐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닐 텐데’라며 오랫동안 인생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였다. 그러한 고민 끝에 이유진은 북한통일 전문가로, 김미나는 탈북청소년 진로 상담가로, 박슬기는 삶의 모델링이 되는 꿈을 꾸며 현재의 위치성에서 각자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대학원에 온 것도 그냥 나를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의 현실과 이런 거를 보면서 나를 살게 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꺼다 그래서 어쨌든 분단이 되가지고 이렇게 70년 넘게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내가 북한에 살았던 경험들, 전문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배워서 통일과 북한 관련된 비전이 생긴 거죠.”(이유진)

“..., 나중에 철들고 이러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정을 꾸리기 위해 하기 보다는 진짜 공부를 해서 북한 관련된 청소년들의 진로, 학업 여기에 관해서 상담을 해서 도움을 주고 싶고 다음에 박사까지 해서 교육가가 되고 싶거든요.”(김미나)

“음..., 편견을 깨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은 불쌍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간다는 인식을 깨고 싶어요. 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도 잘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삶의 목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고 해야 할까? 근데, 북한 사람도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차별한다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편견을 깨고 스스로 울타리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박슬기)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적극적 주체로서 자신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사회적 자아를 치유하는 외상 후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정보, 지식을 공유하려는 시도는 변화적 주체로서의 행위성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 극복 과정에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다. 분단 사회에서 경험한 고통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또 그 책임은 무엇인지를 성찰함으로 구조화된 고통이지만 타자와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후 성장 경험에 따른 행위자성을 탐색하였다. 외상 후 성장은 자기 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네트워크 및 교육을 통하여 위치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 경험은 국가와 가족의 보호라는 제도적 안전망의 상실이 가족 해체라는 외상의 재생산에 개입하는 사회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가족해체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의 삶에 남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고통을 재생산하는 상징폭력으로 기능하고 있다(김명희, 2014). 북한 이탈주민의 65.2%가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이로 인하여 북한이탈여성은 가족 해체 및 부재를 경험하면서 애착 외상이 내면화되어있기 때문에 남은 사회에서 동일한 아픔을 공유한 가족 구성원의 감정적 유대 일환으로, 가족 간의 갈등 유발 및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동반하고 있다. 더욱 가족의 죽음과 관계 상실을 애도조차 할 수 없었던 정서적 외상은 사회문화적 외상의 성격을 함축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가족 상실 경험에 대하여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돕고, 외상의 아픔을 가족과 공유하며 지지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기존 PTSD는 다양한 종류의 외상 경험자의 증상과 반응양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외상이 아동청소년기 발달과정과 사회구조적인 배경에서 발생한 공포(terror), 단절(disconnection), 속박(captivity)의 형태로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복합 PTSD(Complex PTSD) 양상을 포함한 사회심리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안현의, 2007; 김희경, 2012), 외상 후 성장은 시간 변화의 관찰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단 연구(임선영, 2019) 등의 장기적인 연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의 애착 외상은 아동청소년 발달과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배제 경험 및 고통으로 인하여 심리사회적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asten et al., 2009), 대인관계를 해석하거나 사회적 관계 맥락을 이해하는데 취약할 수 있다(김홍주, 2020). 이로 인해서 관계 성찰능력을 발달시킴으로 자기 이해 능력 및 타인의 행동과 의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적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탄력성에 기반한 교육 자원을 형성함으로 행위자성을 확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업 동기는 외상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되며 학업목표를 성취함으로 자기 효능감 및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19). 특히 아동기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청소년은 2006년 687명에서 2021년 기준으로 2,287명의 증가(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2021) 추세를 반영하면 이들의 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진학률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에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탈북과정에서 외상에 노출된 경험으로 주의력 결손 및 인지조절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기억의 결함과 부정적 정서가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Qureshi, et al., 2011; Summer et al., 2017). 구체적으로 외상 경험에 노출된 북한이탈대학생은 대학 적응 과정에서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적 귀인 양상을 보이거나 대학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타인이나 대학사회를 대하는 태도에서 사회적 반감이 높고 무력감으로 고립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허성호 외, 2013). 이러한 양상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학업 중퇴로 인한 외상의 재경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리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외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김선국 외, 2003) 학습과 기억의 인지적 능력을 고려한 교육지원체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상 후 성장의 일환으로 종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교는 개인에게 외상 경험을 해석하고 삶의 의미뿐 아니라 자기 초월적 삶의 의미를 정립할 참조틀을 제공해준다(이정호, 이희경, 2011). 이러한 과정에서 종교는 고통의 의미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영성(spirituality)이 매개로 작용하여 종교 유무와 유형을 너머 외상 극복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혜원, 안현의, 2006; 이정호, 이희경, 2011). 국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종교인 비율은 기독교 41.7%, 천주교 9.5%, 불교 10.1%로 기독교가 많은 편이다(안현민,

윤여상, 정재호, 2017). 이러한 현상은 이들이 탈북 과정에서 종교 종사자 등의 도움이 한국 입국 이후 종교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종교성(religiosity)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들의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변화는 신앙 변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위기를 경험한 이후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겸손히 수용하려는 태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Tedeschi et al., 1998). 따라서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영성(spirituality)을 가진 이들은 외상 극복 과정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임선영, 2020).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경험하는 종교적 문화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성과 영성의 포괄적 개념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사람은 그들이 위치한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 행위를 통하여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주체성을 발현하기도 한다(Archer, 1995; Emirbayer & Mische,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커뮤니티는 연구 참여자들이 행위자성을 형성하고 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들은 북한의 기존 연결망이 단절되고 남한에서 새롭게 사회·경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더욱 이들은 자의적 탈북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및 애착 상실의 고통이 있다. 이들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남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 부담 가운데 사회적 네트워크는 중요한 극복 자원이 된다.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신뢰와 상호성으로, 공동체의 약속이행에 따른 주관적인 심리적 기대 너머의 삶의 실체로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한다(김왕배, 2014). 이처럼 사회적 신뢰와 약속,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체는 사회적 치유의 매개체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애도함으로써 사회와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정서적 지지와 돌봄은 이들에게 잃어

버린 사회적 자기(social self)의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망의 역할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지점에서 개인의 회복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변화의 주체로서의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fication)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삶의 환경에서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진 주체적 행위자가 되어 사회적 환경이 장애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타자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실천적 삶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자성의 발현은 사회속의 지식과 권력을 변화시키는 것을 모색함으로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성찰의 능력을 포함한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커뮤니티의 확대와 사회적 지지를 통하여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다변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 사회를 지향하며 북한이탈여성의 고통이 특정 집단이나 세대에게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치유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과 공동체, 남한사회가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함께 한다’는 사회적 가치를 기억하고 연대하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치유 과정은 북한이탈여성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포용력과 맞닿아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행위자성을 재구성하는 실천은 남한 사회 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 사회 지향은 이들의 고통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을 발현시키며 고통 받는 타자와의 연대적 실천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의 경험이 지식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을 부여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사회 제도가 마련

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위치성은 여전히 출신으로 인한 제도적 신분에 기반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외상 사건 즉, 가족의 분열, 인권 침해, 성적 트라우마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여성화된 침묵’ 이(조은, 2001)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침묵은 언어의 부재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조건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침묵일 수 있다(김명희, 2014). 이로 인하여 이들의 외상은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속에 언어화 되지 않은 외상, 자아방어기제, 부인(denial) 등을 분석하여 외상의 흔적이 어떻게 기억되고 재구성되어 기억과 정체성이 공적 담론과 상호작용 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더욱 이들의 외상 사건이 과거 경험의 재해석일 뿐 아니라 손상된 공동체 기억의 회상이라는(Rosenthal, 2006) 것을 유념하면서 지배적인 사회담론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자성의 발현은 사회적 관계 내에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권력과 지배담론에 저항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내러티브가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사회적 트라우마는 개인 사건으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현재화 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를 통하여 치유하고 사회적 공감으로 의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수행적 내러티브는 사회적인 삶에 새로운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조주영, 2014). 따라서 사례 연구를 통하여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위치한 사회적 위치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 현상도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치유 효능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사회적 폭력으로 빚어진 것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받고 공감받게 된다. 더불어 고통의 증

언을 억압하거나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제도에 저항함으로 분단 사회에서 기인한 트라우마의 사회적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외상과 외상 후 성장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개인화의 표현인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사회화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외상으로 인한 심리적 서서적인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제약적인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행위자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여성의 행위자성이 사회구조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를 깊이 하며 추후 질적 및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을 통한 사회심리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은 4명의 사례를 탐색한 연구로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성별에 따른 행위자성의 특성과 외상 후 성장의 차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상 후 성장은 미국에서 개발한 이론(Tedeschi et al., 1998)으로 자국의 문화에 부합하는 양상으로 성장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임선영, 2020). 이로 인하여 외상 후 성장 변화는 문화특수적이면서 보편적 특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독일(Zoellner, Rabe, Karl & Maercker, 2008), 중국과 일본, 스페인은(Taku, 2012) 미국과 비교했을 때 외상 후 성장 변화가 낮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과 중국, 제3국, 한국이라는 복합적인 사회문화 경험을 고려한 외상 후 성장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이 외상 후 성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로 주변화되는 재생산을 끊고 변화하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공유하고자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주체적 행위자로서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권지은, 황순택, 이승복 (2012). 정서적 학대 및 방임과 성격장애: 감정표현불능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1(1), 75-91.
- 고주희, 송현주 (2015). 자기성찰지능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를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2(2), 245-268.
- 김미자 (2010). 북한이탈여성의 외상 경험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7(1), 1-18.
- 김명희 (2014). 외상의 사회적 구성, 사회와 역사, 101, 311-352.
- 김보라, 신희천 (2010). 자아탄력성과 삶의 의미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4), 117-136.
- 김신국, 이강준, 이승환, 남민, 정영조 (200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신경인지기능, 생물정신의학, 10(2), 147-148.
- 김왕배 (2014).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7, 5-24.
- 김연희, 전우택, 조영아 (2010).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문제 유형율과 영향요인: 2007년 입국자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19, 141-174.
- 김재환, 가요한 (2020). 애착이론에서 바라본 고난의 행군세대 북한청년의 물질사용장애 취약 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사회적, 심리적, 신경생리적 관점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1), 49-96.
- 김현경, 전우택 (2009).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외상경험 이후 심리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2), 363-397.
-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회*, 6(2), 213-228.
- 김혜진 (2016). 학업탄력성을 매개로 한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생명연구*, 40, 167-214.
- 김홍주 (2020).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과 외현화 문

- 제행동의 관계 성찰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1-35.
- 김희경, 오수성 (2010). 탈북 여성의 MMPI-2 프로파일, 한국심리학회지, 29(1), 1-20.
- 김희경 (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31(4), 1003-1022.
- 남북하나재단 (2019). 2018 탈북 청소년 실태조사. 서울: 하나재단.
- 박신영, 정현석, 류인균 (2015). 뇌 과학 분야 기능적 연결체학의 발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iological Psychiatry, 22(3), 101-108.
- 박은미, 정태연 (2018). 북한이탈대학생의 대학생활 및 남한사회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7(2), 257-288.
- 박혜원, 안현의 (2006).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여성 및 외상관련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 연구, 7(1), 201-214.
- 박찬중 (2012). 사회학에서 인과성의 문제: 분석사회학과 비판적 실재론, 경제와 사회, 94, 177-208.
- 빅터 프랭클 (2020). 빅터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시형 역, 과주: 청아출판사
- 설지윤, 김창대, 고유립 (2019). 글쓰기가 대인간 외상 경험자의 자서전적 기억 특성, 인지적 재평가와 정서반응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20(3), 99-120.
- 안현의 (2007). 복합외상(complex trauma)의 개념과 경험적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26(1), 105-119.
- 안현민·윤여상·정재호 (2017). 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 양계민, 황순택 (2008).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9(2), 333-358.
- 엄태완 (200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이주 과정의 외상적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189-213.
- 유시은·배형준·조명숙·김경희·최영실 (2013). 탈북대학생 중도탈락 원인 및 대안.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임선영 (2019). PTGI 영적 변화 요인(spiritual change)의 심리측정적 이질성: 성장에 대한 인식과 종교 변인에 따른 비교. 인지행동치료, 15(2), 377-400.
- _____ (2020).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인식 분석: 한국인과 미국인의 비교 및 종교유무에 따른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0), 85-102.
- 이국화, 하은혜 (2009). 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1-18.
- 이동훈, 이수연, 윤기원, 최수정, 김시형 (2017). 성격5요인, 외상 후 인지, 사건 관련 반추, PTSD 증상,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외상 후 성장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2), 241-270.
- 이숙영, 이동혁, 조혜연, 김경미, 김효정 (2016). 북한이탈여성의 외상후 성장에 관한 질적 연구: 중국 체류시 결혼경험이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73-1102.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연구의 이론적 지위: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이정호, 이희경 (2011). 종교적 대처방식과 삶의 의미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종교교육학연구, 36, 171-192.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7(2), 467-484.
- 조은 (2001). 침묵과 기억의 역사화: 여성·문화·이데올로기. 창작과비평, 29(2), 76-90.
- 조주영 (2014). '주체'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 시대와 철학, 25(4), 73-96.
- 조한범·이우영·이금순·전효관 (2003). 북한이탈청

- 소년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통일연구원.
- 주소희 (2016). 외상경험 아동청소년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65-83.
- 진미정 · 이순형 · 김창대 (2009). 탈북인의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자본. 서울: 학지사.
- 최승미, 김영재, 권정혜 (2013). 인지적, 문제해결적 행동 대처 및 사회적 지지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3(2), 307-328.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탈북학생교육-탈북학생현황. (2021.10.28.). <https://www.hub4u.or.kr/webmdl/sub4uStudentStatus/menuHtmlDetail.do?cmkey=11147>.
- 통일부 (2018). 2018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 주요사업통계-북한이탈주민정책. (2021.09.30.).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홍창형, 전우택, 이창호, 김동기, 한무영, 민성길 (2005). 북한주민들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의 관계, 신경정신의학, 44(6), 714-720.
- 허라금 (2012). 여성의 행위성과 가족 관념의 재구성, 철학논총, 67(1), 297-316.
- 허성호, 박은미, 박준성, 정태연 (2013). 탈북 새터민 대학생의 사회적응: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도구를 이용한 사례연구, 스트레스, 21(3), 193-202.
- Alexander, Jeffrey C (2007). 사회적 삶의 의미, 박선웅 역, 서울: 한울.
- Allen, Jon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역, 서울: 학지사.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16). 외상 후 성장 상담 및 심리치료에의 적용, 강영신·임정란·장아나·노안영 역, 서울: 학지사.
- Stake, Robert E (2000) 질적 사례 연구, 홍용희·노경주·심종희 역, 서울: 창지사.
- Archer, M. S. (1995). *Realist social theory: The morphogenetic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ndura, A. (2018).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athways and reflec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3(2), 130-136.
- Bonanno, G. A., (2004). Loss, Tr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 Calhoun, L. G. & Tedeschi, R. G. (2004). Authors' response: The foundations of post-traumatic growth. *New consider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791-796.
- _____ (2014). *Handbook of post-traumatic growth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Psychology Press.
- Creswell,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Los Angeles: Sage.
- Csank, P. A., & Conway, M. (2004). Engaging in self-reflection changes self-concept clarity: on differences between woman and men, and low-and high-clarity individuals. *Sex roles*, 50, 469-480.
- Emirbayer, M. & Mische, A. (1998). What is agency?.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962-1023.
- Harr, R & Secord, P. F. (1972). *The Explanation of Social Behavior*, Oxford: Blackwell.
- Hussain, D., & Bhushan, B. (2013).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s among Tibetan refugee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0(2), 204-216.
- Masten, Carrie L, Eisenberger, Naomi I, Borofsky, Larissa A, Pfeifer, Jennifer H, KMcNealy,

- ristin, Mazziotta, John C, Dapretto, Mirella. (2009). Neural correlates of social exclusion during adolescence: understanding the distress of peer rejection.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4(2), 143 - 157.
- Milgram, S. (1967). The small world problem. *Psychology Today*, 1(1), 61-67.
- Milam, Joel E, Ritt-Olson, Anamara & Unger, Jennifer B. (2004).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2), 192-204.
- Kim, Hyun Kyoung, (2012). A Study on the perceived growth after adversity among north korean women refugee: application of grounded theory method. *OUGHTOPIA*, 21(1), 33-66.
- Rosenthal, G. (2006). *The Narrated life story: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experience, memory and narration in Narrative, Memory & Knowledge: Representation, Aesthetics, and Context*. Huddersfield: University of Huddersfield Press.
- Qureshi, Salah U, Long, Mary E. Bradshaw, Major R. Pyne, Jeffrey M. Magruder, Kathy M. Kimbrell, Timothy. Hudson, Teresa J. Pharm. Jawaid, D. Ali. Schulz, Paul E. and Kunik, Mark E.(2011). Does PTSD impair cognition beyond the effect of trauma?. *The Journal of Neuro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23(1), 16-28.
- Summer, Jennifer A. Hagan, Kaitlin. Grodstein, Fran. Roberts, Andrea L. Harel, Brian Koenen, Karestan C.(201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cognitive function in a large cohort of middle-aged women. *Depression and Anxiety*, 34(4), 356-366.
- Steinmetz, G. (2004). Odious Comparisons: Incommensurability, the Case Study, and Small N's in Sociology. *Sociological Theory*, 22(3), 371-400.
- Stuart, R. B. (2004). Twelve practical suggestions for achieving multicultural competence.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5, 3-9.
- Taku, K. (2012). Posttraumatic growth in American and Japanese men: comparing levels of growth and perceptions of indicators of growth, *Psychology Men and Masculinity*, 14(4), 1-14.
- Tedeschi, R. G &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1-18.
- Tedeschi, R. G., Park, C. K., & Calhoun, L. G. (1998). *Posttraumatic growth: positive changes in the aftermath of crisis*. Mahwah, NJ.
- Van der Kolk, B. A. (2005). Development trauma disorder. *Psychiatric Annals*, 35(5), 401-408.
- Yin, Robert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Los Angeles. Sage.
- Zoellner, T., Rabe, S., Karl, A., & Maercker, A. (2008). Posttraumatic growth in accident survivors: Openness and optimism as predictors of its constructive or illusory sid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4, 245-263.
- 투고일자 : 2021. 11. 26.
 심사일자 : 2021. 12. 13.
 게재확정일자 : 2021. 12. 31.

Reconstruction of agency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KyoungMi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agency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s they actively reconstructed the meaning of their lives post defection trauma. Therefore, this case study followed four North Korean defectors who met together from April to December 2019 during which they described their post-traumatic growth experienc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emotional trauma due to family dissolution and social structural discrimination embodied in the process of defection. Second, the study participants formed the self as a reflective subject by the expression of agency due to post-traumatic growth, and strengthened agency through social community and educational capital. Third, study participants formed social identities as subjective actors of social change and aimed for lives of solidarity practice with others. This study discusses the reconstruction of agency according to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s of post-traumatic growth.

Keywords: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xperienc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Agency, Case study